

감동의 추천!

현재인 사모(예수원)
이시영 장로(전 유엔 대사)
최바울 선교사(인터콥 대표)
류승렬 교수(총신대)

하늘에 속한 사람

메마른 영성, 잠든 신앙을 깨우는 감동의 폭풍!

헤브리맨 윈 형제(Brother Yun)의 중국 전도행전

“하늘에 속한 사람”은 중국 가정교회에서 활동한 불굴의 그리스도인을 그린 감명 깊고 영웅적인 이야기이다. 나는 현대판 사도행전을 보는 기분으로 이 글을 읽었다. 이것은 잠들어 있는 지금의 교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마크 스티바 목사/《부흥을 제대로 이해하라》저자

“별 다섯 개가 아니라 별 여섯 개, 일곱 개를 주고 싶은 책이다.” —아마존 독자서평

원 형제·폴 해터웨이 지음/고석만 옮김/A5신변형

예수를 업고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인생의 갈림길에서 만난 5분!

폭탄을 던지려 들어갔던 전도집회에서 오히려

‘복음의 폭탄’을 맞은 스티븐 룡구의

소설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회심 이야기

“스티븐 룡구의 책은 영적인 스텝을 느끼게 해 준다.

나는 독자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꼭 붙어 앉아서

전속력으로 밀어닥치는 은혜를 움켜쥘 것을 권한다.”

—마이클 카시디(아프리카 선교회 설립자 겸 국제팀 리더)

스티븐 룡구 지음/고석만 옮김 ※8월 중순 출간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정성욱 교수와 풀어 가는 기독교 궁금증 16

이분들께서 먼저 읽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 고응수 총장, 형성교회 김삼환 목사,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 부흥과개혁사 백금신 목사, 두란노 유종성 출판본부장, 제자들과교회 화중부 목사.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변증》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진수를 대화체 내용으로 소개한 변증서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바람직한 성경적 신앙에 갈등을 느끼며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책은 사막 한 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이다.” - 김진홍 목사

정성욱 지음/민음의 글들 213/A5신변형/224면 2분 8,800원

홍성사

“하늘에서 온 편지, 대천덕 신부님을 기립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깊은 뜻을 기리며, 오래 전에 출간되었던

《나와 하나님》《우리과 하나님》을 새롭게 펴내려고 합니다.

‘신자의 성장’ ‘신자의 생활’ ‘기증생활’ ‘기도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신부님의 평소 생각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대천덕 자서전》- 개척자의 길

성령사례를 받는 신학생이자 활동과 선한으로 노동 운동을 했던 청년, 신학생들 자리를 박차고 태백의 산골짜기를 찾아간 성공회 신부, 성령적 토지 제도의 회복을 외치는 사회 개혁가 대천덕 신부가 남긴 자서전. 대천덕 지음/양혜원 옮김/A5신변형/양형 288면/8,800원

《예수원 이야기》- 광야에 마련된 식탁

예수원의 역사, 이혼으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성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 그것은 믿음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에게 주는 성령의 감동적인 기록이었다. 예수원의 역사자가 담겨있다. 현재인 지음/양혜원 옮김/A5신변형/양형 288면/9,000원

《모테합창단 정기 음악회》- 2004 하늘에서 온 편지

· 서울공연-시간:2004. 8. 24(화) pm7:30 장소:예수의 전당
· 태백공연-시간:2004. 8. 26(목) pm7:30 장소:태백 문화예술회관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사과 하소

2004년 7-8월

편집부에 한수경 김혜수, 미술계 작부에 김승철, 문화원관료부에 김경아 씨가 새 가족으로 합류하였습니다.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이 소식지는 무가치無價値입니다.

홍성사 Book News

책의 선물

2004년 7-8월

“단숨에 읽는 하버드대 최고 인기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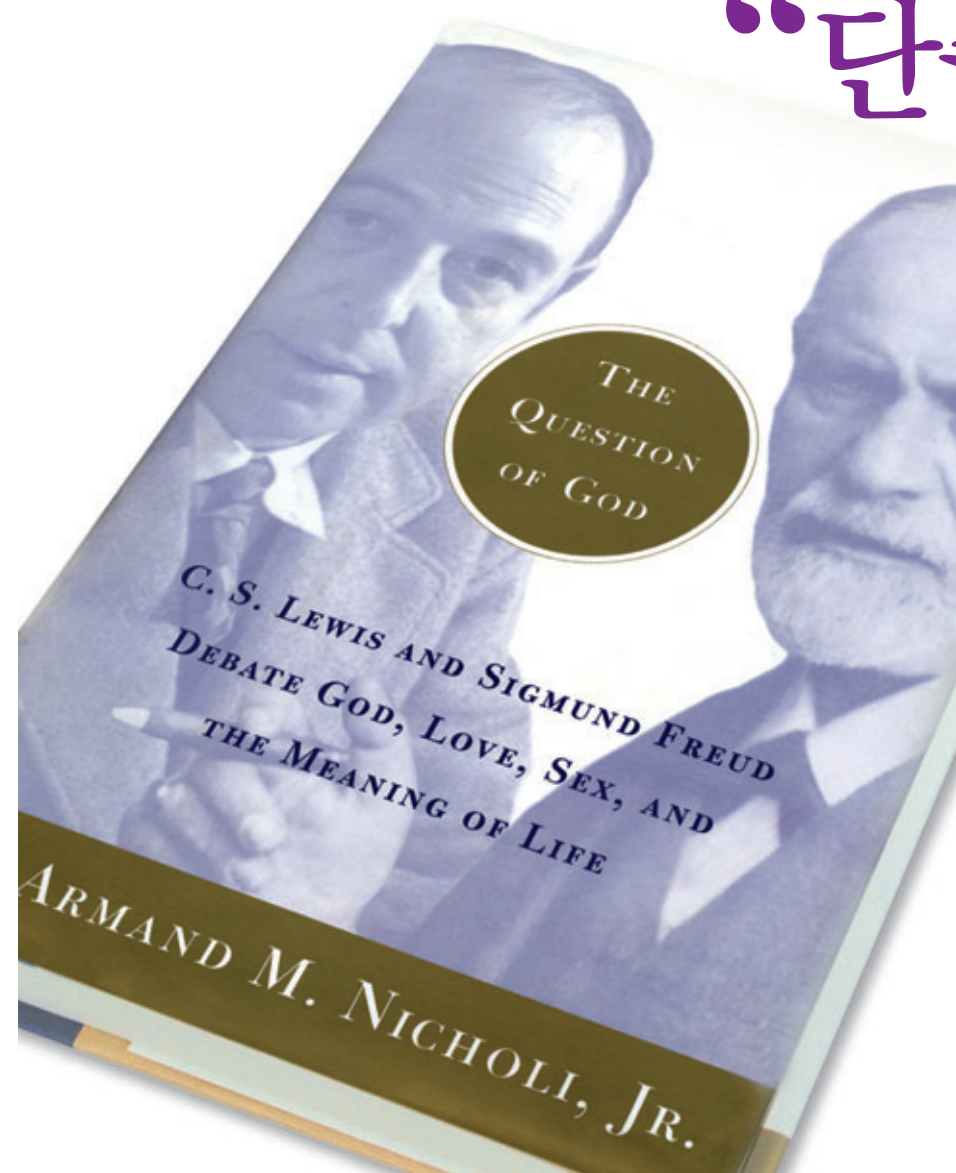
근간

루이스 대 프로이트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대논쟁

아렌드 M. 니콜라이 주니어 지음/홍성기 옮김

아렌드 M. 니콜라이 주니어 - 하버드 의대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하버드 의대 병행함) 정신과 교수



니콜라이: “하버드대 학생들은 행복합니까?” 하버드 학생들은 헛기침을 하고는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다. 니콜라이는 다시 질문한다. “행복하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버드대 학생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고요?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 있고 잘 곳이 있고 지성과 젊음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 생각해 보지만 역시 행복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한다. 하버드는 의로운 것이며 상호간에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니콜라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행복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대부분 성공이며 성공에 대한 개념은 명예와 부이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적인 추구만으로는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하버드에서의 지적 추구일지라도 말이다.”

아렌드 M. 니콜라이 박사는 누구인가? 그의 이름은 신문에 종종처럼 등장하지 않으며 텔

레비저 시정자나 라디오 청취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학교와 의대에서 사용되는 손꼽히는 교재, 하버드 정신의학 가이드의 편집자이자 공저자이다. 백악관의 공동위원장과 평화봉사단 자원위원을 역임했으며, 에버렛 쿠프스(Everett Koop)의 뒤를 이

그 유명한 강좌명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C. S. 루이스: 대립되는 세계관”

아렌드 M. 니콜라이 박사는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35년간

즐거이 강의를 해 왔다.

라고 말한다.

강의실에서 니콜라이는 두 세계관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때로는 루이스를 때로는 프로이트를 옹호하며 학생들이 사교하도록 자극한다. 하지만 니콜라이 교수가 자신의 견해에 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가 무엇을 믿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프로이트는

사람들을 난해한 정신의학적 범주로 나누지 않고,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었다. 그래서 수 강자들 중에는 내가 정신과 의사가기 때문에 지 않는 불가지론자임에 틀림없다고 가정하는 과학 전공자들이 있다. 또한 루이스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두 갈래의 그룹은 열린 토론을 한다.”

학생들은 그 강좌를 가장 좋아 하는 강의로 평가한다. 니콜라이의 강의 때문에 하버드가 광란했다는 학생도 있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학생도 있다. 이제 그 강좌가 루이스 대 프로이트(The Question of God)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마치 루이스와 프로이트가 한 강의실에서 논쟁들을 하나하나 논변하는 것을 지켜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 2002. 5. 13.

켄 번즈-

현대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두 달의 동시에 텔레비전 두 사람에게 대해 정곡을 찌르며 논하게 이야기해 준다.

피터 크리프트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객관적인 책이 있는가 하면, 도전적이고 흥미를 끌며 주관적으로 감동적인 책이 있다. 만일 양편을 다 가진 책이 있다면 읽을 수가 없을 것이다.

타모시 존슨

니콜라이 교수는 30년 이상 프로이트와 루이스에 대해 강의하고 연구한 결과를 이제 우리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다.

《루이스 대 프로이트》의 데이터베이스

1. 저서적 존재에 대하여-

프로이트: 어떤 사람이 종교적 교리에 있는 모든 불합리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는 모순들을 간파한다 해도 우리는 그가 지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놀랄 필요가 없다.

루이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법이다. 악을 가늠한 한 것은 바로 이 자유의지이다.

루이스: 영적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지성이 더욱 예리하게 될을 깨닫는다..... 이것이 존 버니언같이 교육을 받지 않은 신자가 세상을 놀라게 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이다.

프로이트: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해지려면 상당히 많은 자제가 필요한 법이다. 모든 욕망을 무작정 따르다 보면 결국은 무력해지고 병들며 집토끼가 거짓말하고 감추게 되는 등..... 건강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버리게 때문이다.

루이스: 인간에 대하여 프로이트: 나는 대체로 인간에게 선택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인간들이 공적으로 이런저런 도덕적 원리에 동의하는 아무것에도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대부분의 인간은 무가치하다.

루이스: 영적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지성이 더욱 예리하게 될을 깨닫는다..... 이것이 존 버니언같이 교육을 받지 않은 신자가 세상을 놀라게 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이다.

프로이트: 어떤 사람이 종교적 교리에 있는 모든 불합리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는 모순들을 간파한다 해도 우리는 그가 지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놀랄 필요가 없다.

루이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법이다. 악을 가늠한 한 것은 바로 이 자유의지이다.

루이스: 영적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지성이 더욱 예리하게 될을 깨닫는다..... 이것이 존 버니언같이 교육을 받지 않은 신자가 세상을 놀라게 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이다.

루이스: 영적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지성이 더욱 예리하게 될을 깨닫는다..... 이것이 존 버니언같이 교육을 받지 않은 신자가 세상을 놀라게 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이다.

루이스: 영적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지성이 더욱 예리하게 될을 깨닫는다..... 이것이 존 버니언같이 교육을 받지 않은 신자가 세상을 놀라게 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이다.

루이스: 영적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지성이 더욱 예리하게 될을 깨닫는다..... 이것이 존 버니언같이 교육을 받지 않은 신자가 세상을 놀라게 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이다.

루이스: 영적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지성이 더욱 예리하게 될을 깨닫는다..... 이것이 존 버니언같이 교육을 받지 않은 신자가 세상을 놀라게 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이다.

지연안내 紙面案内

이웃 루이스 대 프로이트 유신론과 무신론의 세계관 대결 01
구간 연재소설 《레프트 비하인드》 02
진간&근간 “너, 결혼식 준비하니? 난, 결혼 생활 준비한다!” 03
기획광고 “하늘의 편지 대천덕 신부님 기립니다” 04

온고지신 溫故知新

양하철 (소설)

정연희 지음/민음의 글들 101/A5신/427면/9,500원/1992년

120년 전의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이 생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한 사 람들의 사 람을 통해 하려 했던 또 다른 모양의 기독교관문서.

실존적 확신을 위하여 (수필)

구상 지음/민음의 글들 103/A5신/234면/4,500원/1992년

실존의 근원적 초월과 응답을 회피하거나 도피시키고 소유나 그 권력적 가치에서 살아보려는 한 대항쟁을 한 대항쟁의 무 방향성을 환기시킬 만한 글.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내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내는 '크리스천의 무기' -기독교변증

정성욱 교수와 풀어 가는 기독교 궁금증 16

정성욱 지음/민음의 글들 213/A5신변형/224면

정성욱 교수는

세계 복음주의 신학계의 주목받고 있는 소장 신학자로서 미국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서 석사학위(M.Div),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에서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 교수 지도하에 조직신학 박사 학위(D.Phil)를 취득했다. 현재 미국 테네시 주 킹 칼리지 신학 교수이며, 신학은 반드시 교회를 생기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트리니티(트리니티) 대학교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개혁 전통의 종교개혁의 대항과 2세기 한국 교회의 개혁》(부흥과개혁사, 1999), 《Admiration and Challenge: Karl Barth's Theological Relationship with John Calvin》(Peter Lang, 2002)과 《인간의 조건》(한글출판사, 2003) 등이 있다. 최근 저서로는 《나와 하나님》(부흥과개혁사, 2004)과 《기독교변증》(부흥과개혁사, 2000), 폴 탈러의 《명확신학》(한국침례교주변사, 1999),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한국침례교주변사, 1998) 등을 번역했으며, 우리말로 영문으로 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사람을 죄에 빠뜨릴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요?

선악과, 국가질서를 위한 도구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매하여 가라 사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네, 그 구절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 없는가?”

“예,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과 땅을 정복할 것과 만물을 다스릴 것에 대한 복을 주시고 에덴동산을 아담의 땅으로 만들어 사람의 소로 주신 다음,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과실들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을 주시고 있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하여

하어 구두쇠와 같은 융통함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관대함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라네. 이것을 좀더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복을 주셨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국민, 국토, 국민에 대한 복이었지. 하지만 국가의 골격과 형식은 갖추어주어도 그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혼돈스러운 무정부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확립하고 계신 것이네.”

하어 구두쇠와 같은 융통함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관대함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라네. 이것을 좀더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복을 주셨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국민, 국토, 국민에 대한 복이었지. 하지만 국가의 골격과 형식은 갖추어주어도 그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혼돈스러운 무정부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확립하고 계신 것이네.”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신간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정성욱 교수와 풀어 가는 기독교 궁금증 16

정성욱 지음/민음의 글들 213/A5신변형/224면

과를 만들어 먹지 말라고 명하시기 전에 이 사람을 은혜와 관대함으로 대하시고 복을 주심으로써 사람에게 대한 당신의 긍정적 인 태도를 천명하셨다는 것이군요. 즉 사람을 향한 은혜와 돌봄과 관심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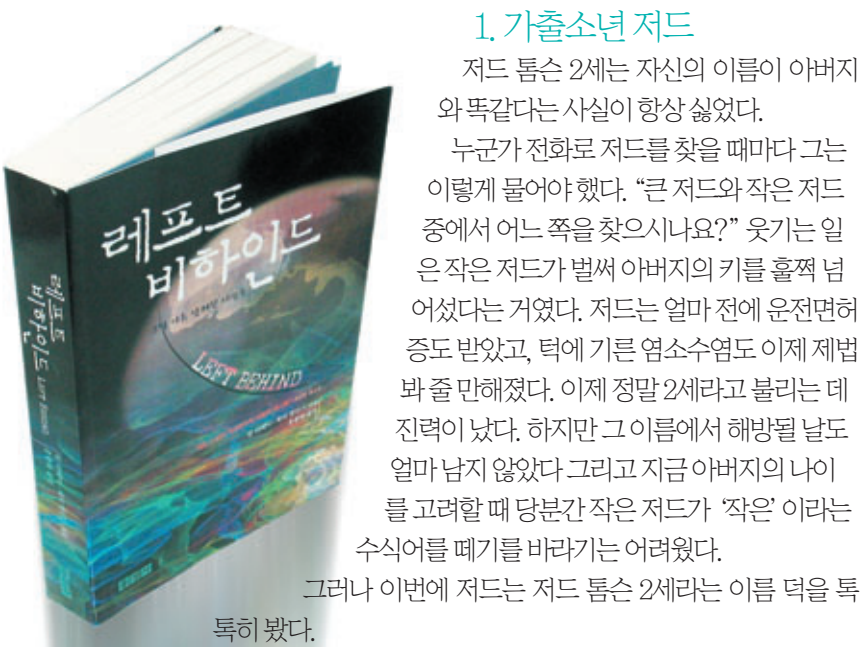
“그렇다네, 바토이 정을 이해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먹지 말라고 하신 사건에 집중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 본문에서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먹지 말라고 명하시기 전에 이 사람을 은혜와 관대함으로 대하시고 복을 주심으로써 사람에게 대한 당신의 긍정적 인 태도를 천명하셨다는 것이군요. 즉 사람을 향한 은혜와 돌봄과 관심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네, 바토이 정을 이해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먹지 말라고 하신 사건에 집중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 본문에서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1. 기출소년 저드

저드 톱스 2세는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
와 똑같은다는 사실이 항상 싫었다.
누군가 전화로 저드를 찾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물어왔다. “큰 저드와 작은 저드
중에서 어느 쪽을 찾으시나요?” 웃기는 일
은 작은 저드가 벌써 아버지의 키를 훌쩍 넘
어섰다는 거였다. 저드는 얼마 전에 온전면허
증도 받았고, 턱에 기른 염소수염도 이제 চে법
봐 줄 만해졌다. 이제 정말 2세라고 불리는 데
진력이 됐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해방될 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나이
를 고려할 때 당분간 작은 저드가 ‘작은’이라는
수식어를 떼기를 바라키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저드는 저드 톱스 2세라는 이름 턱을 푼
특허를 뒀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묘하. 저드는 패제를 불렀다. 지난 며칠 동안 저드
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구와 어울렸느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늦었느냐
등의 문제로 부모님과 한바탕 다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드는 우연히도
집에 있었고 그날따라 어머니는 저드에게 우편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이런 게 하늘
이준 기묘하 아니라고 무엇이겠는가?

어머니의 심부름에 저드는 요란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저드가 사소한 부탁
이나 심부름에도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이라도 진 것처럼 근다고 편지를 주었다. 그
러나 저드는 정말 그런 느낌이었다. 누구에게든 이래라저래라 하는 말 듣는 게 싫었다.
“엄마는 손이 얹어요?” 저드가 어머니에게 따졌다.

“내가 부탁했잖아.” 어머니가 말했다.
“왜 뭐든지 내가 다 해야해?”

“네가 집에서 일하고 내 일을 비교해 보고 그런 말을 하려무나.”
그렇게 해서 예의 그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계속 그렇게 나오면 외출금지인 줄 알라
고 어머니가 으름장을 놓은 다음에야 저드는 흥행거리며 우편함으로 갔다. 그렇게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우편함에 들어 있던 전단과 편지와 잡지를 별 생각 없이 한 장 한 장 넘겨 보며 집 안
으로 들어오면 저드는 그것 – 자기 앞으로 발송된 편지 한 통 – 을 발견했다. 그전 명
백한 실수였다. 아버지에게 보낸 게 분명했다. 저드는 그걸 보지마라! 있었다. 그전 사
업을 우편이었고 반송주수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저드는 천연스럽게 그 편지를 제멋대로 읽으면서 슬쩍 집어넣고 나머지 우편물을 어
머니에게 드렸다. 뭐, 엄격히 말한다면 드린 것도 아니었다. 저드는 우편물을 어머니
앞에 있는 식탁 위로 뒹 던졌고, 그 바람에 그 중의 절반 정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저
드는 위층의 자기 방으로 향했다.

“잠깐만, 꼬마.”
어머니는 저드가 제일 싫어하는 호칭을 써서 그를 불렀다.
“이리 와서 이 우편물을 제대로 읽어.”
“좀 읽다가요.”
저드는 제단을 뛰어올라가며 대답했다.
“그래, 됐다. 네가 다시 일 때쯤이면 난 벌써 우편물을 집어서 읽고 답장까지 썼을 게다.”
“고맙단 말은 안 하셔도 돼요!”
저드가 소리쳤다.
“제대로 안 한 일을 두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은 없단다. 하야간 고맙다.”
저드는 제책을 벗어 던지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다음 침대에 누워서 편지봉투를

열었다. 저드의 가슴 위로 저드 톱스 2세라는 이름이 찍힌 신용카드가 떨어졌다. 카드
에 붙어 있는 스티커에는 카드회사의 무료번호로 전화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동봉된 안내문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른 조
치라고 적혀 있었다. 그 신용카드만으로도 수만 달러를 쓸 수 있었다.

저드는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내원은 어
머니의 결혼 전 성과 본인의 생일을 물었다. 저드는 당연히 할머니의 결혼 전 성과 아버
지의 생일을 말했다. 결국 이름이 어찌 됐건 이건 아버지의 신용카드였던 것이다. 저
드는 지금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계음으로 된 안내방송을 들었다.

저드가 탈출을 계획한 건 바로 그때였다.
저드는 정말 멀리 달아나고 싶었다. 자신의 가족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무엇 때
문인지 왜 그런 건지는 잘 몰랐지만, 여하튼 그랬다.

저드의 아버지는 시카고에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 저드의 어머니는
따로 일할 필요가 없었다. 아홉 살짜리 쌍둥이 동생 마크와 마시는 아직 저드의 신경을
건드릴 만한 나이는 아니었다. 그 애들을 편찮았다.

마크와 마시의 방은 교회에서 받은 선물로 가득했다. 한때는 저드의 방도 그랬었
다. 저드는 교회에 꼭 빠져서 성경구절도 암송했고, 여름마다 수련회도 참석했었다.

그러나 마운트 프로스펙트 시에 있는 세스랑 마을 교회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
면서 저드는 갑자기 그런 데 흥미를 잃어버렸다. 전에는 친구들을 교회와 학생회 모임
에 데리고 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부모님 때문에 마지못해서 간다는 말을 하기도 창
피하게 되었다.

저드는 이제 교회 다닐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했다. 꼬마일 때야 상관이 없었지만, 이
제 더 이상 저드처럼 웃을 일거나 저드가 듣는 음악을 듣거나 저드처럼 심심하게 사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교회에서 저드는 뛰어난 제 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는 대
로 행동하는 아이들과 어울렸다. 약간의 자유, 그게 저드가 원하는 전부였다.

부모님은 여유가 있는데도 저드에게 자를 사 주지 않았다. 비스를 타고 동학하는 고
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냐는 것이 부모님의 대답이었다. 가끔씩 저드가 부모
님의 차를 사용할 때면, 어딜 가면 안 된다, 누구랑 다니면 안 된다, 뭐는 하면 안 된다,
몇 시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내 인생의 친구들

최은하

실현서 늘어나는 것은 나옴만이 아
니다. 이사 다닐 때마다 이삿짐센터 아저
씨들은 불평 아닌 불평을 토로한다. 이유,
서점 하셔도 되겠어요. 책이 많네요. 방
한구석에 쌓여 가는 책을 보면 한숨이 나
지만, 도대체 책을 사는 것도 멈출 수 없
고, 오래된 책을 버리지도 못한다.

지난 달 거름을 들여 산 2개의 책장 덕
택에 이 방 지 방에 쌓여 있던 책들이 제
자리를 찾았다.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하
겠지만, 목적인 새 책장에 다시 책을 분류
해 넣으면서 너무 뿌듯했다. 활자 밑으로
그어진 반듯하지 않은 줄들, 빈 공간에 쓰
여 있는 빼박한 메모와 의문의 흔적들은
옛 친구의 편지와 사진만큼 반가웠다.

책을 정리하다 아주 오래된 책을 보았

다. 커비가 낡아서 다 해진 《천로역정》은
내가 글도 읽지 못하던 때, 엄마가 읽으셨
던 책이다. 내가 이 책을 언제 읽었던 것
일까? 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책을 펼쳐 보니 아주 오래된 책에서만 말
을 수 있는 종이 냄새가 났다. 좋아하는 는
렇게 변색되고, 번역도 엉성하고 삽화는
손상되었다. 정성없이 바쁜 학생 시절이
었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존스럽고 낡
아빠진 책을 읽게 되었을까? 아마도 책의
명성에 혹해 이 책을 손에 들었던 것 같
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교회에서 어른들
이 특하면 말하는 순례자의 의미를 깨달
았다. 그 낡은 책 옆으로 작년에 새로 산
컬러 양장본 《천로역정》이 눈에 들어왔
다. 힘들고 고단했던 시기에 그 반달반들

한 새 책은 내게 또 다른 의미 있는 친구
가 되어 주었다.
새 책이 있는데도 나는 왜 이 낡은 책을
버릴 수 없는 것일까?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 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묘한 기쁨도
있었지만 그 책은 전혀 다른 세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엄마와 내게 비슷한 감
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엄마에게 영향을
준 그 책이 내 삶에도 영향을 주었다.
새것에 유난히 민감한 세대에 살고 있지
만, 한 세대를 거쳐서 세대에까지 영향
력을 미치는 책의 마력에 나는 헤어 나
을 수가 없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날 울
게 만들었던 책들, 밤을 새워 가며 읽다가
강의 시간에 졸게 만들었던 책들, 어려운
말만만 잔뜩 늘어놓아 무슨 뜻인지 이해

해 보려고 같은 문장을 몇 번씩 되풀이해
서 알아야 했던 책들이 책장 가득히 꽂혀
있다. 모두 내 인생의 소중한 친구들이다.
커비가 다 해진 낡은 《천로역정》을 새
책장에 곱으며, 10년 혹은 20년이 흐른
뒤에 어쩌면 이 중에 몇 권의 책이, 지금
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조카들 손에 들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권이 그 아이를 인생을 바꿔
놓을지도 모른다는 뿌듯한 기대를 품어
본다. 그래서 난 내 소중한 친구들을 버리
지 못한다.

글=최은하(33세)에서 재직된 임무를
담당했고, 지금은 '북있는사람' 편집부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책읽기 습관 2



홍성사 여름 소설전

“나는 소설로 휴가 간다”
소설 마르틴 루터 I, II



낯은 데로 입하소서 이창준 지음/A5신변형/양장/360원/10,000원
침묵 앤드 슈셔루 지음/공문체 옮김/A5신변형/312원/개장중보판/양장본 11,000원 보급판 6,800원
양화진 정영희 지음/A5신/472원/9,500원
요셉의 회상 자유철 지음/A5신변형/240원/6,500원
레프트 비하인드 팀 라헤이·제리 켄킨스 지음/홍충락 옮김/A5신변형/504원/11,000원
소설 마르틴 루터 I, II 그레그트 지음/홍충락 옮김/A5신변형/1권 324원·2권 304원/각권 8,800원

TEL. 333-5161 FAX. 333-5165



원 형제·폴 헤터웨이 지음/고색민 옮김/A5신변형/416원

메마른 영성, 잠든 신앙을 깨우는 하늘의 소리!

《하늘에 속한 사람》은 열여섯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오직 복음전파만을 위해 살아온 ‘하늘의 사람’ 원 형제의 신앙 간증이다.
공산 치하의 심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탄의 세
력과 사투를 벌인 그는 때로는 전기불의 고문에, 때로는 대소변 구멍뎌이에
쳐넣어졌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다.

원(雲) 형제, 왜 ‘하늘의 사람’ 인 가?

본명이 루이정임(劉正臨)인 그는 1938
년 중국 허난성 난양현의 농촌 마을에
서 태어났다. 공산 치하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았으나 1974년 아버
지가 기적적으로 암에서 치유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기 시작했다. 그가 ‘하늘의 사람’
(Heavenly Man)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자신의 본명을 당국에 밝히지 않으려고
거부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공안원이
이름과 주소를 대라면서 구타를 가하
자,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주소는
천국입니다!”라고 크게 외쳤다.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게 되면 그 지역 그리스
도인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가정
교회 성도들은 원 형제의 이런 용기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향한 사랑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오늘날까지 그를
‘하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원 형제의 투옥일지

그는 중국 정부의 극심한 박해 속에
30회 이상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

다. 하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정
부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 중국 곳곳을 돌아다니 원
형제는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힘든 투
옥생활을 했다(1984-1988). 투옥되어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
는 74일 동안의 금식이었다. 석방되어
복음 전도를 하다가 ‘사회질서 중대 교
란행위’라는 죄목으로 또다시 체포, 두
번째 투옥(1991-1993)생활을 했다. 출옥
한 뒤에는 중국 가정교회 연합운동을
일으켜 1996년 10월 ‘31년 연합’을 창
립했다. 1997년 3월, 다시 투옥되었으
나 두 달 후에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9월 독일로 탈출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독일에 도착한 원은 중국을 탈출해 온
가족을 만나기 위해 2001년 2월 미얀마
에 갔다. 그러나 독일 여권이 취소되어
다는 누명을 입고 또다시 체포되어 7년
형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으로 9월에 조기 석방되어 현재 가족과
함께 독일에 근거를 두고, 전 세계를 순
회하며 중국 교회의 선교 비전인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스티븐 퉁구 지음/고색민 옮김/A5신변형/312원
스티븐 퉁구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태어난다. 어린시절 부모에게 버림 받은 뒤 쓰
레기봉을 뒤져 겨나를 따우고 다리 밑에서 잠을 자면서 겨지 생활을 한다. 미움과 원한
으로 불통된 그는 십대에 ‘검은 그림자’라는 도시 갬단에 가입해 절도와 강도행각으
로 세상에 대한 복수를 꿈꾼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 집회장을 폭파하려는 임무를 띠
고 집회장에 잠입한 스티븐! 폭탄을 던지기 전 잠시 설교를 듣는데……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책임편집 ● 한수경 (편집부, netpage@hsbooks.com)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대천혁 지음/각권 A5신변형
“이 책은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문제들을 취급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수원을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과 수련생들과의 대화를 통
해 나는 예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이바지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신학교과사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책임편집 ● 이현주 대리

요한과 더불어-첫 번째 산책

이재철 지음
《요한과 더불어-첫 번째 산책》이 발간. 마침내 전10권이 완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2년 4월 26일 주님의교회 주일예배시간에 요한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한 지 12년 3
개월, 1997년 12월 30일 《요한과 더불어-여덟 번째 산책》이 처음으로 발간된 이후 6년
7개월, 그리고 1998년 6월 21일 주님의교회를 퇴임하면서 요한복음 설교를 마감한 지 6
년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저자 서문에서
책임편집 ● 편집부

